

‘환자 폭행 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 위탁해지

환자 학대·이사장 세금 탈루 의혹 추가 제기

광주시 “고용 승계 최우선…혁신 TF팀 구성”

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위탁해지가 추진된다. 또 광주시 조사 결과, 환자 학대와 이사장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 고발과 세무조사 의뢰 조치도 이뤄졌다. 광주시 23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료재단 측도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포기 의사를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 198명의 고용을 최대한 승계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립병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 혁신 TF팀’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3층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환자 폭행의혹 2차 긴급현안보고회를 통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학대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인보호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사장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결과가 확인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또 “병원 이사장 등이 연봉 계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어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병원 측에서 제출한 2015년과 2016년 자료를 토대로 우선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회계문서 보존기간이 5년 이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병원에 입원중인 80대 환자 A씨의 가족은 이 병원 이사장에게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을 수 있는 병원 내 CCTV 화면이 고의로 삭제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이 병원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요양병원 특별조사를 벌여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미비,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위반,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 정보 미동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준비 분주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2주일여 앞둔 23일 본전시 작품인 현대자동차의 ‘autonomous VR Simulator’ 설치 작업이 광주비엔날레전시장에서 열렸다.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 23일까지 43일간 열릴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

‘택시운전사’로 광주-대구 ‘오월 교감’

광주 희망나무, 대구서 양측 시민 400여명 영화 관람 행사

영화 ‘택시운전사’로 광주시민과 대구 시민이 하나가 된다. 사단법인 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는 24일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대구시민과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및 의료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와 광주 아이안과가 후원하고 대구시 청년회의소가 주관해 광주시민과 대구시민 200여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함께 관람하며 5월 광주의 역사를 체험한다. 광주와 대구가 함께 80년 5월을 향해 달

리자는 뜻에서 행사 이름을 ‘달빛 무빙드 라이브’로 지었다. (사)희망나무가 대구시내 상영관 한 곳을 임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5월 아픔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보다 다른 지역민들이 더 많이 이 영화를 관람해 편해지고 애곡된 5월 광주의 실상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희망나무는 대구시 청년회의소 협조로 관람을 원하는 대구시민들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포한 가운데 많은 대구시민들이 호응에 나서면서 상영관을 늘리기도 했다.

대구시민 정보씨는 “우리 모두는 광주 시민께 빛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내어 주시니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또한, ‘깨어있는 대구시민 모임’은 영화 관람 전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희망나무 이사인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광주를 제대로 만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며 “광주와 대구가 달빛 무빙드라이브를 통해 양 지역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나무는 2014년 ‘광주진료소’를 캄보디아에 개원해 낙후지역에서 3년째 의료봉사를 하는 단체다. /최권일기자 cki@

주민 조례제정 온라인서명 가능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조례를 발의할 때 필요한 주민 서명 절차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 수정,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조례개폐를 발의할 주민은 지자체에 청구서를 낸 뒤 지자체 인구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에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해질 19:10
달출 08:16 달짐 20:50

변덕쟁이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호리고비	26/32	보정	호리고비	25/30
목포	호리고비	26/32	순천	호리고비	26/32
여수	호리고비	26/31	영광	호리고비	26/32
나주	호리고비	25/32	진도	호리고비	26/31
완도	호리고비	26/32	전주	호리고비	26/31
구례	호리고비	24/32	군산	호리고비	26/31
강진	호리고비	25/32	남원	호리고비	25/32
해남	호리고비	26/32	흑산도	호리고비	24/30
장성	호리고비	25/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간조	만조
목포	09:03 21:13	03:58 16:07
여수	04:27 16:40	10:44 23:03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25/30	21/31	20/31	22/30	23/29	21/28	21/28

◇생활지수

	위험
	보통
	자외선
	높음

안병하 경무관 추모 흉상건립 어디에

전남경찰 후속작업 착수…5·18 기념공원·경찰청 물망

전남지방경찰청이 1980년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의인’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추모 흉상 제작<광주일보 8월 23일 1면·7월 24일 6면> 및 제막식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2일 ‘울해의 경찰영웅’으로 고 안병하 경무관을 선정했다. ‘울해의 경찰영웅’은 경찰정신의 귀감이 되는 전사·순직경찰관의 추모 흉상을 건립해 국민과 경찰관들에게 그 업적을 현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고 안병하 경무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의 거듭된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 중

심의 시위진압 기조를 유지하고, 경찰 무기 회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 인권경찰의 귀감이 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찰영웅 선정과 추모 흉상 제작을 통해 고인은 물론 전남경찰의 명예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모흉상을 설치할 장소로는 구 전남도청 인근이나 5·18 기념공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0월 제막식 일정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청 또는 전남지방경찰청이나 경찰교육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부모들과 부적절 관계’ 고교 교사 해임

학부모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광주 시내 한 고교 교사가 해임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고등학교 A교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진학상담을 이유로 학부모들과 만나다 복수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으로 징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50%만 받게 되지만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6평|단층형
7,9평|복층형
적층, 확장형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